

다음은

Pornography - the other side. F.M.Christensen, New York, Westport, Conncticut
라는 책의 논지 요약입니다.

앞에서부터 마지막 두 장만 빼고 핵심적인 논변들을 정리하지 않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맨 뒤의 두 장 중 하나는 폭력적 포르노에 대한 검토인데, 여기서 그는 폭력적 포르노가 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폭력물의 일반적인 효과이고, 폭력과 섹스가 연계된 것만을 특별히 취급하여 금지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포르노물에 대한 현 미국 판례의 조류를 짚어가면서 비판하는 내용과 앞의 모든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반포르노주의의 논변을 검토하면서, 그들 논변에는 논리의 선택적 적용, 일반화가능하지 않은 주장, 동어반복, 주장자의 주관적 기준의 보편화, 성 혐오주의, 이중 기준 적용, 행위준칙에서 비밀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직설적으로 포르노그래피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이 책과 대극점에 서 있는,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반포르노주의를 주장하는 책들을 읽어보시고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면 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드워킨의 <Is There Right to Pornography?>라는 논문과 이를 비판하는 Rae Langton의 <Whose Right? Ronald Dworkin, Women, and Pronography>라는 논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성적 욕망과 판타지 (남성과 여성의 차이)

*남성이 여성보다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다.

i) 남성 동성애자들은 막대한 포르노 소비자들인 반면에 레즈비언들은 그렇지 않다.

ii) 척추 손상을 입은 남자는 비주얼한 포르노에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여자는 척추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촉각적인 성적 자극에 여전히 반응한다.

*남성은 여성의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남성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

*여자들은 섹스를 해봐야 포르노를 보고 흥분을 하게 된다. (성경험이 없는 여자들은 포르노를 보고 흥분하지 않는다. 반면에 일부이긴 해도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포르노를 보고 흥분을 할 수 있다) 반면에 남자는 포르노를 보고 흥분하는데 성경험 여부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번도 섹스를 해보지 않은 청소년도 포르노를 보고 크게 흥분한다. 한마디로 여성들의 흥분감성은 경험에 남자보다 훨씬 더 의존적이며, 이에 대한 증거는 소녀기때 섹스를 많이 하는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섹스를 훨씬 다른 문화보다 좋아한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여자들은 누드보다는 잘 차려입은 남자를 좋아한다. 그것이 파워와 성취의 표식이기 때문이다. 로맨틱함은 양육을 잘하고 계속 보살핌을 줄 것이라는 표식이고, 이 표식을 구별하는 프로그램이 여성의 유전자에 내장되어 있다.

*사랑이 섹스의 도덕적 전제라는 아이디어는 최근 서구 사회를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개념이었다.

*이러한 차이들을 이해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성의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면, 별 중요치 않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변태이거나, 무감각 때문에 그런다고 해석해 버린다. 그럼으로써 대부분의 여성들은 포르노를 쾌락의 사소한 형태로 간주하며, 청년들에게 그 매체가 강력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대체 수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연적 본능은 그 자체로는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고 여성의 본능과 남성의 본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차이가 본질적으로 나쁘다거나 어느 한 쪽의 성적 정체성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성적 대상화 논의 - 대상화라고 딱지를 붙이면 어느 것이나 경멸스럽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탄광 노동자는 '채굴 기계로의 대상화' 사랑하는 연인은 '연애 대상' 등으로 불러 버리면 무엇이든지 나쁘게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능적인 특수성을 뽑아서 활용하는 다른 모든 활동은 그대로 두면서, 성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에만 '대상화'라는 기분 나쁜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차별적 용어 사용은 섹스 자체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반육체적 성혐오주의로부터 도래하는 것이다.

*육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육체의 특수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는 논의 - 머리칼, 귀, 발, 손에 초점을 맞춘 광고들은 무수히 많다. 샴푸 광고를 보아라.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물들에는 전혀 비인간화라 부르지 않으면서 성적인 표현에 집중할 때는 비인간화니 격화니 하는 것은, 표현물들은 각각의 표현영역을 가지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표현물의 목적에도 그 한계에도 맞지 않다는 당연한 논리적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여가, 취미, 패션에 초점을 둔 모든 활동이나 표현물들도 전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한 기능에만 초점을 둔 대상화라고 비판할 수 있다. 소녀가 락스타에 열광하는 것도 판타지(전인격), 즉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는 기능성에 초점을 둔 부분적 판타지라는 점에서 포르노 배우에 대한 흥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성적 욕구는 필요를 나타내는 것이지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포르노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표현물이지만 견해를 재확인하거나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필요에 대해서 경시하고, 억지로 견해를 읽어내어서 그 견해가 바르지 않다고 판단, 그 표현물을 없애버리자는 주장은 애초에 그 표현물의 원인이 되었던 '필요'에 대한 경시,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르노가 착취적인 상을 보여준다는 논의 - '착취적'이라는 말을 그들이 쓰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든 활동은 착취적이라고 표현된다. 그 중에서 섹스에 관한 것만 착취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귀여운 아기 사진이 광고에 나오고, 어떤 여성이 잡지를 보면서 말한다. '아유, 귀여워라' 분명히 그 아기는 그렇게 귀여워하는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 그 사진에 배치된 것이고, 귀여운 것을 보고자

하는 여성의 필요는 충족되었다. 아기는 착취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가? 착취라는 개념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씌으로써 포르노에 내재된 교환관계를 특수화하는 것은 논리적 혼란에 불과하다. 탄광의 광부들이 갱도를 파고 돈을 받듯이, 포르노는 여성의 육체를 이용해 돈을 벌지만 포르노에 출현하는 여성은 또한 남성의 욕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포르노를 즐긴다. 선형적으로 여성들이 포르노를 싫어한다는 그러한 유전적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포르노를 여성들이 증오하게 되는 것은 성혐오주의에 바탕을 둔 문화적 사회화가 만들어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포르노에 대한 태도는 강간에 대한 공포로부터 온다. 그러나 강간과 포르노는 전혀 다른 사태이다. 강간은 하나의 범죄고 포르노는 섹스 판타지일 뿐이다. 흑인에게 강도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노상강도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노상강도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노상강도가 출현하는 영화물에 대한 금지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포르노물은 합의에 의한 섹스만을 다루고 있다.

*여성이 존중받는 방법은, 섹스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그 다양한 기능과 활용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이지, 스스로 성적 존재임을 부정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는 모두 각각의 특유한 영역을 갖고 있으며 한번에 전영역을 다루지 않는다. 미디어가 여성의 진취적인 비즈니스맨십, 과학적 태도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적 아름다움을 다룰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성적 표현과 연계되는 것은 그 인간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성혐오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이 이 사회에서 보다 전인격적인 존재로 인정 받는 것은, 성을 표현하는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표현하는 각 영역이 충분히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로맨스 소설처럼 포르노도 남자를 위해서만 만들어졌지만, 포르노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여성들은 여성의 구미에 맞는 포르노를 생산할 수 있게 추동하는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욕구는 평등하게 각자의 필요에 맞게 충족될 수 있다. 어느 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다른 욕구의 충족과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포르노가 육체적 매력만을 여성에게 더 강조한다는 논의 역시 다른 예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섹스와 관련된 표현물에만 적용되는 논법이다. TV의 가족 코미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귀엽고 매력적이다. 그렇다면 아이의 귀여움만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남자도 표현물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한 매력만을 강조받게 된다. 다른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높임으로써 그 다양한 특성을 인정받아야지, 인간의 육체적 매력의 가치를 거부함으로써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형적 여성을 에로틱 서사가 표현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판타지 라이프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판타지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 여성을 그냥 묘사할 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판타지도 아니고 누구도 그것을 소비할 욕구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게이 포르노는 모든 사람들이 게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자들은 헌신 없는섹스 묘사가 여성의 안정감을 위협한다고 한다. 그러나 포르노라는 비주류한

판타지에 서로가 일상 생활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집어 넣을 수는 없다. 그들이 기대하는 실제의 남녀 관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수한 기능성을 중시한 남녀의 성적 표현물을 비난할 수는 없다.

*반포르노 운동은 남성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완전한 불관용을 내포하는 것이다. “너의 필요와 정서는 악이고 따라서 억압되어야 한다” 즉, 남성의 본질적 부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차별주의다. “너와 나는 다르므로 너는 열등하다.” 호모섹슈얼이나 오럴섹스에 대한 전통주의자의 공격도, 자신과 다른 욕구에 대한 불관용이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성과 관련한 점에서 여성의 도덕적 우위를 믿는다는 점에서 우익 전통주의자들은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신념을 공유한다. 반검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종류의 태도-특히 섹슈얼리티에 대한 태도-가 언제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 극단주의자들은 여성이 포르노물에 출연계약을 맺지 못하는 법을 제안했다. 이는 레즈비언물과 다른 종류의 예술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결국 이는 자기 몸을 표현할 권리를 박탈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반포르노주의자들의 전략.

1. 모든 포르노물을 폭력적인 것으로 조작, 묘사한다. 이는 정직한 논변이 약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다. 대부분의 포르노는 폭력적이지 않다. 오히려 헐리우드 무비가 섹스와 폭력을 더 자주 연결짓는다. 포르노의 6%만이 폭력과 섹스를 연결짓는다.

2. 섹스와 연관된 폭력만을 비판한다. 그들의 비약적 논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폭력은 나쁘다 -> 섹스+폭력은 나쁘다-> 섹스를 표현하는 포르노를 금지해야 한다(폭력이든 아니든). 반포르노주의자들은 남성에 대한 폭력은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다. 이는 이중기준이다. 최근 법원은 남녀가 번갈아가면서 엉덩이를 약하게 치는 섹스물을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에서 금지하였다. 동일한 시각에 극장에서는 남자가 다른 남자를 체인으로 감아죽이고 톱으로 썰고 누드 상태에서 고문하는 액션물이 상영되고 있었다. (리셀웨폰)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지위격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남성이야말로 대부분의 매체에서 지위격화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기준은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여성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전통적인 기사도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반포르노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증오 캠페인을 표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폭력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오락물들이 남성에 대한 증오 캠페인을 표방하고 있지 않듯이, 섹스와 폭력을 연계시키는 표현물들은 증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산출하는 비주얼을 만드는 색다른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많은 여성들이 강간 환상을 섹슈얼한 판타지로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강간 당하고 싶어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판타지일 뿐이다. 여성들이 강간 판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판타지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폭력과 섹스를 연계한 다른 표현물들을 남성이 소비하면, 그것은 곧 실천을 준비하는 예행연습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모순인 이중기준이다. 공포영화를 보는 것이, 연쇄살인마나 유령에게 살해당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거나, 젊고 아름다운 존재(공포영화의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듯이, 폭력을 적절하게 활용한 섹스 역시 색다른 비주얼한 판타지를 즐기는

수단일 뿐이다.

*성적으로 활동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지위격화라면, 남자나 여자 모두 포르노에서는 지위격화당한다. (남성은 성적인 행위에만 몰두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또한 성적으로 적극적인 여자가 경멸할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포르노주의자들의 성혐오주의에 근거한 해석일 뿐이며, 조사에 의하면 많은 남성들이 성적으로 활동적인 여자를 더 좋아한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표현한다는 논의 - 잘 차려 입은 여자 사진 역시 그렇다. 실제로 매체가 표현하는 사람이 매체를 보는 사람의 만족만을 존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이 귀결을 오직 섹스나 누드에만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혼란이다. 또한 여성들이 로맨스를 공유하는 남자를 판타지에서 그리듯이, 남성들도 기꺼이 섹스를 하려고 하는 여자를 환타지화하는 것일 뿐이다. 남자가 사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포르노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로맨스 소설 판타지의 결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이중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반박당하지 않는 일종의 궤변일 뿐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면, 여성을 '무력한 존재'로 다루고 있다고 비난하면, 여성에게 남성이 무엇인가를 '받으면' '남성만을 위한 존재'로 다루고 있다고 비난한다.

*종속적 위치를 그린다는 논변 - 종속적 위치라는 개념이야 말로 해석자 마음대로인 것이다. 실제로는 성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을 종속적 위치로 경멸하고 싶은 성혐오주의의 발현일 뿐이다. 그들은 여자가 3명이고 남자가 1명인 섹스는 하렘이라고 비난하고,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1명인 섹스는 집단강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인종혼합 포르노에 대한 그들의 분석을 보면, 얼마나 평등하게 두 명의 남녀가 섹스를 행하건 상관없이, 인종차별적으로 해석된다. 백인여성과 흑인남성의 조합은, 백인을 강간하고 싶어하는 흑인들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흑인남성은 성적인 활동에만 복무하는 열악한 인종으로 그려졌다고 비난된다. 흑인여성과 백인남성의 조합은, 우월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있는 백인남성이 흑인여성을 인종적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비난된다. 만약 판타지가 그런 이유로 비난된다면 실제의 섹스는 더 심할 정도로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아니겠는가? (즉, 포르노물에서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종혼합 섹스를 한다면 그 자체가 더 인종차별적이지 아니겠는가?) 이것은 매우 이상한 결론인데, 실제로 인종 혼합 결혼이나 인종 혼합 섹스에 대한 혐오는 인종차별을 지속시켜온 매우 중요한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ex당신의 여동생이 흑인과 섹스를 해도 괜찮단 말인가?) 포르노에서 나타나는 수동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동성을 반영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리고 포르노는 소설이나 할리우드의 영화에서보다 훨씬 더 여성을 적극적으로 묘사한다. 한편, 수동적인 섹스가 왜 그 자체로 나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증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와 피지배, 능동과 수동을 섹스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욕구를 즐기는 한가지 방식이지 증오의 형식이 아니다. 또한 어떤 노동자 남성 계층이 지배-피지배로 그려진 섹스물을 즐겨본다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표현한 견해를 재강화하고 학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찮게 취급되는 현실에서 판타지로나마 보상받으면서 욕구를 즐길려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즉 자기 위안일 뿐이다.

*모욕이라는 논변. - 모욕이라는 개념은 문화마다 다르다. 자신이 정액 먹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만약 먹게 된다면 강제로 먹는 상황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여성은 정액을 먹는 것만 봐도 ‘모욕’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사람은 다 다른 욕구가 있고 다른 감성이 있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정액을 먹는 사람이 모욕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억측으로 덧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단정은 논리적 비약이다. 호모섹슈얼 포르노에서 한 명의 남자가 다른 남자의 정액을 받아 먹는 것은 동성애자를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다. 동성애자 집단 전체가 모욕당한다고 느낀다면 어찌하여 그런 포르노물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겠는가? 오히려 이런 식의 불관용적인 태도, ‘모욕’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집단적 명예 훼손에 대한 감각을 동원하는 태도야말로, 심각한 범죄를 불러 일으킨다. 미국에서는 종종 남성 동성애자를 이유없이 살해하는 터프 가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남성동성애자가 남성성을 모욕하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섹스의 실험은 하는 사람이 동등한 자유의사를 가지고 합의하면 다 괜찮은 것이다. 오랄 섹스가 모욕인지 아닌지를 보편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 다른 사람이 섹스하는 것을 보면서 자위 행위 하기, 음모 짚기, 2대 3섹스 등 모든 섹스의 다양한 실험들은 하는 사람이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고, 보고 싶은 사람이 보면 괜찮은 것이다. 섹스의 행위 자체에는 본질상 아무것도 지위격화하거나 모욕하는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만약 그러하다면 미서너리 포지션(정상위) 말고는 모두 지위격화하는 것으로 애초에 체위 자체를 금지했던 교회의 방침이 옳을 것이다. 그냥 반대하고 싶은 행위를 ‘지위격화’한다고 이름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포르노에서 음모를 깨끗이 짚은 여성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여자를 지배하기 위한 모욕행위라고 해석한다면, 면도를 깨끗이 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남성을 어린 소년처럼 다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이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모욕이라고 단정지어 버린다. 즉, 자신과 다른 것을 하면 수치스럽고 인간에 대한 모욕이며 지위 격하라고 배제해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반포르노운동은 이러한 비논리적인 감수성을 운동의 영역으로 승격시킨 것일 뿐이다.

*남녀관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라는 논변 - 우선 포르노가 육체적 관계에 중심을 둠으로써 남녀관계를 해친다고 말한다는 것은, 다종다양한 미디어들의 비중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포르노는 남성들이 마주치고 겪게되는 미디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가 포르노보다 더 자주 부딪히는 것은 오히려 러브 송과 로맨스 영화일텐데, 이 넘쳐나는 양에 비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사랑별레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은 성적 욕구에 있어 남녀가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적이라는 가정을 한다. 즉 남자의 성욕도 여자와 다르지 않다고 가정해 버린다. 그리고는 미디어를 비롯한 여러 자극이 성욕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남자가 그토록 성욕을 자주 느낀다고 주장한다. ‘차이’에 대한 그들 평소의 지론이 다시금 이중기준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젊은 남성의 욕구에 대한 도덕적 공격과 비하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 젊은 남성들은 동료 그룹에 있어서만 섹슈얼리티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정당화시키는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어려서부터 소년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관심이 역겨우며, 그녀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이라 듣는다. 반포르노 캠페인은 욕구에 대한 죄의식을 심화시키고 근거없이 확장시킨다. 그리하여 포르노를 옹호하고자 하는 남성은 자신의 욕구에 대한 당당한 옹호보다는 표현의 자

유라는 초라한 이름 뒤로 숨으며, 그들이 공격받고 있는 종류의 성적 감수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포르노가 악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전략을 택할 용기를 잃는다. 몇몇 남성은 포르노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들의 유전적 환경적 특수성 때문이다. 이것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특수한 체질을 빌미 삼아서 포르노 고발 대열에 끼어 나머지 남성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손쉬운 도덕적 우월감을 맛볼 수 있고 여성은 남성의 성욕이 대칭적으로-즉 여성과 마찬가지로-주물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현대 남성 지배가 일반적으로 분석되고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성들이 그들의 성적 감성에 대한 존엄을 방어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이것은 흑백의 사고로서 무엇이든지 남성의 것에 대한 변호는 곧 여성에 대한 지배를 의미한다는 논리적 비약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일종의 사회적 시선으로 이루어진 감옥을 구성하고, 결국 남성에 대한 성적 차별(그들의 성적 감성을 항시적으로 공격하고 거부하는 것)을 결과한다.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희생자 역할, 즉 권력없음을 강조함으로써 권력을 쥐는 전략은, 오직 섹스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만 성공하였는데, 이들은 반포르노법 판매추법을 일반 국민투표없이 남성의원들을 부끄럽게 하는 십자군 운동에 의해 의결시켰다. 이들은 남성의 욕구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욕구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곧 남성 지배라는 비난을 퍼붓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성은 여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보다는 침묵함으로써 '통제하고 있는자'의 이미지의 허세를 유지하려고 한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남성의 권리에 대하여 주장하는 자는 반동으로 몰려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여성을 공격하려고 트집잡는 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이다.

*호모섹슈얼 포르노는 이성애 포르노와 동일한 코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지배하거나 남성의 지배하려는, 또는 지배 당하려는 존재임을 표현하는가? 여성이 남성처럼 행동하는 포르노는 남성들의 성적 본능과 존엄을 경시한 결과인가? 결국 포르노가 견해를 표현한다는 종류의 논변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력한 존재를 원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이 마인드 리딩(독심술)을 해대는 것과는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위격하감정을 (성혐오주의로 인해) 느끼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가 남성들이 그 포르노물을 보는 이유라고 단순하게 가정해 버린다. (자신들의 감수성을 보편화시키는 독심술 논법)

*현실 여자에 대한 감각을 잃는다는 논변 - 포르노를 보는 것은 잠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성들은 수없이 현실 여자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다. 만약 현실 여자에 대한 감각을 잃는다는 이유로 무엇인가를 비난해야 한다면 특별히 아름다운 몸매를 지니고 있는 여자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 섹슈얼한 욕망에 대한 정보가 한 사람의 현실적인 인식을 잘못 인도한다면, 탓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무지이지, 판타지가 아니다.

*포르노에 나오는 여성의 적극성과 성욕에 대한 기대를 보통 여성은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논변 - 이 논변 역시 성차별적이다.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의 전형적인 수준보다 높은 정도

로 애정적이고 로맨틱한 수준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이라는 분위기까지 풍긴다. 로맨스 소설은 이러한 높은 애정과 로맨스 수준에 대한 판타지로 가득 차 있다. 반면에 남자가 여성에게 좀 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을 요구하면 즉각 나쁜 놈으로 몰린다. 여성이 남성에게 관계에서, 자신의 판타지에 좀 더 맞게끔 행동하도록 제안할 수 있듯이, 남성도 자신의 판타지에 맞게끔 새로운 것을 실험해보자고 제안해서 안될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과 자발적인 의사가 보장되느냐이지, 각자의 성이 자신의 고유한 판타지와 기대 욕구를 가지면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니다. 반포르노주의자들은 포르노에서 본 것을 강제로 실행하려는 남성들에 대한 보고를 인용한다. 그러나 강제가 종종 일어나는 사실로 인하여 그 자체로는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지식이 어찌 악으로 단죄될 수 있는가? 강제한 놈이 나쁜 것이다. 섹스 체위 뿐 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행위를 남에게 강제로 시키는 것은 범죄이지만, 그 강제로 시킨 행위 자체의 본질-예를 들어 청소를 해라에서 청소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하여 선악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유독 포르노에 대해서만 그러한 선악의 역추적이 이루어진다. (특정 체위를 강제하면, 그 강제가 아니라 그 체위를 표현한 포르노가 비난받는다)

* 각성 이론의 비설득력

- 포르노는 욕구를 각성시킬 뿐 아니라 충족시키기도 한다. 강간범 백명과 인터뷰한 심리학자는, 강간범들은 자기가 생산하는 몽상의 대체물로서 포르노를 소비할 뿐이라고 보고하였다. 욕구를 높인다고 비난 받으면, 해변의 여성도 비난받아야 한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거부하고자 하였던 논변, 즉 욕구를 각성시킨 존재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논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범죄가 목적이 아닌 어떤 행위의 증가가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비난한다면, 여성 범죄율을 높인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도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논리의 비일관성과 이중기준이 드러난다.

*여성에 대한 태도- 대상화, 착취적 관점을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이러한 태도를 찾아내는 것은 로맨스 소설에서 남성이 오직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화와 착취 당하는 존재라는 점을 찾아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학생들이 포르노를 보고 나서 강간범에 대한 모의 형량이 줄어들었다는 사회심리학 실험을 근거로 포르노가 강간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비약이다. 왜냐하면 제안된 형량은 현실에서 부과되는 형량보다 여전히 훨씬 높았으며, 양형에 고려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대학생들이 어떤 것을 더 고려하게 되었는지를 보지 않은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 대학생들이 보았던 포르노는 강간 포르노가 아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 그 자체가 강간의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지적 감성적 능력을 떨어뜨렸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유력한 해석은 포르노가 섹스에 관련된 행위 자체에 대한 관용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동성애나 기타 다양한 섹스 행위에 대한 관용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일치하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 관용적 태도가 포르노를 보지 않은 대학생과의 양형 차이를 가져왔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서나, 이 실험의 결과를 포르노의 악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섹스 그 자체를 즐기는 존재로 묘사됨으로써 여성을 경멸하게 한다거나 흐트러진 모습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섹스와 결부된 것은 비하된다는 성혐오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주장이다.

*포르노가 강간에 개연성 있는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은 불균형한 질문이다. 정확한 질문은 포르노가 없었을 때보다, 있었을 때 더 많은 강간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이다. 왜냐하면 포르노는 성적 욕구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해소하게도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종종 인용되는 자료는,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포르노가 범죄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질문해놓고, 거기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30% 정도의 범죄자의 답을 무분별하게 증거로서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지는 야하게 차려 입은 여자가 강간욕구를 불러일으켰느냐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강간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자기의 도덕적 흠결이나 결단 이외의 것으로 원인을 돌리고 싶어하며 합리화하고 싶어한다. 이런 상황에서 ‘X가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연구자의 구미에 맞는 듯이 보인다면 ‘yes’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크다. 페미니스트들은,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어. 그여자의 야하게 차려 입은 복장이 강간을 일으켰어’라는 강간범들의 합리화는 올바르게 거부하면서도 ‘포르노 때문이야’라는 그들의 합리화는 전적으로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동일한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두 가지 정보 중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맞는 것만을 차별적으로 택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